

참다운 행복의 길

오늘은 참다운 행복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3 :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가 하는 질문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저는 어떤 유학생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유학생 아내는 남편이 박사 학위를 가질 날을
기다리며, 남편대신 열심히 일을 하며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고생 끝에
이윽고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박사 학위를 받던 날, 가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졸업장이라고 종이 한장 받아 펴보니 “이게 뭐야 이게 다야”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 산을 넘으면 행복이 있을가 하여 그 산을 고생 고생하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또 그 뒤의 산을 넘으면 행복이 있을 가 하여 고생 고생하여 그리로 달려 갔습니다. 거기에도 행복은
없었습니다. 행복은 마치 환상과 같고,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 가치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 그대로 주저 앉아 버릴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생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허무하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도,

사람이 태어난 이상 가치를 찾는 행동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자기의 삶의 가치’ 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생 연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한 소년의 이야기가 두고 두고 제 기억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백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소년은 집에 도착하자 허약한 몸으로 Garage 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허약해진 몸에 넘어질까 싶어 쫓아 가고 싶었지만, 그 소년의 마음을 알았기에, 혼자 타고 돌아 오라고 놓아 두었습니다, 소년은 헬썩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곤 얼마 후에 기진맥진 하여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 소년은 병원에 있을 때 자기가 완쾌되어 나가면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돌리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퇴원하자 마지막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바퀴 돈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이 소년은 영원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 분들은 이 책의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 동안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내가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라,

하고 싶은 그 일을 못해 보고 죽는다면 100년을 살았다고 한 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모두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그것을 지금 해라

비록 어린애이긴 하였지만 이 소년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죽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지금 행하라 네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네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세상 현자가 깨달은 삶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가치가 있는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찾아 오늘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주인공 뢰르소오는, ‘햇살 때문에’ 라는 충동적 이유로 아랍인을 권총으로 살해 한 후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당성이 다른 사람에게 파렴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제의 접견도 거부하였습니다. 신이 있던지 없던지 그것은 자기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고 싶다.

이 세상의 가치 관념, 윤리 의식 세계를 벗어나 훨훨 날고 싶다!

이 세상의 윤리, 가치관의 기준을 초월하여 훨훨 날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작자 까뮈가 주장하는 것과, 인생 연습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신도 윤리도 절대적 의미는 없고, 오직 현재의 너 자신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세상의 현자의 지혜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60년을 미분하여,

순간으로 나눈 현재가, 인생의 전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흥분과 기대로 불꽃처럼 타오르던 현재의 정열도,

그 불꽃이 꺼지고 난 후에는 재와 허무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오늘 가장 원하는 그 일이 내일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깊은 갈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전도서 3 :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깊고 깊은 심연과 같아서

이 세상 지혜로는 채워지지 않고,,

이것은 깊고 깊은 공허와 같아서

이 세상의 부귀, 공명,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습니다.

이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산을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고

신적인 것으로만 채워지고,

이것은 유한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무한한 것,

절대적인 것으로로만 채워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기 원하는 사람은

이 영원의 욕구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와 공허의 심연이 메꾸어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전도서 3 :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영원한 존재가 되고픈 마음,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죽음 앞에서 허무로 돌변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허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면,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허무는 인간을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 떨어 버리고는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와 같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그 자체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절망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원한 것으로 채워질 때 극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한구석을 비워 놓으셨는데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며, 사람은 이 영원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갈증을 채우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면, 사람은 자기가 왜 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될뿐 아니라, 하늘의 행복이 넘치게 되어 언제 어떠한 경우에 처해도 자족하여 기뻐할 수 있으며, 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허무감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면 행복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영원한 미궁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너무 복잡하여 도달할 수 없습니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행복의 길은 제시되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의 길이라 선택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요한 복음 4 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참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 방황한 여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멋있는 남자가 행복을 줄 것 같아 멋있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곧 시들해졌습니다. 다음은 돈많은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질가 하여 돈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은 권세있는 남자, 다음은 이런 남자 저런 남자를 전전했지만 아무도 그 여자의 가슴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포기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점심때쯤 되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였습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갈았던 이 여인은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 : 10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4 : 11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4 : 13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한복음 4 :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 : 15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하셨습니다.

허무와 공허, 수치로 얼룩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이 여자는 마치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때 이 여인의 영원의 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 만나는 사람마다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면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였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4 :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한복음 4 : 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감격스럽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감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할 것은 바로 감격, 이 기쁨입니다.

세속적 성공 주의, 대형 교회의 꿈에서 깨어 일어나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이 기쁨, 이 감격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찾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찾았다!

이 기쁨의 함성!

이것이 오늘날 허무의 복병 앞에 우왕좌왕 하는 군상들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져 가는 군상들 앞에서,

한국 교회가 외쳐야 할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의 galardim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영생(Eternal Life)을 얻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생의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영생은 영어로는 Eternal Life 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입니다.

요한일서 5 : 11 을 보면,

요한일서 5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도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같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 입니다.

영생의 정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 입니다.

성령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 들어오면

허무와 공허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없어집니다.

다음엔 영생을 갖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죄없이 창조된 아담에게는 영생은 약속되었으나, 아직 영생(Eternal Life)은 갖지 못했습니다. 영생은

‘주신다고 하는 약속’ 으로만 존재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디도서 1 : 2 에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생은 아담이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 가운데,

유혹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선물로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유혹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결과로, 영생의 약속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3 : 19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닌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아담 안에서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생의 약속에서 단절되고, 몸의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이 회복되고, 죽음이 정복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과 죄의 권세인 사망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심으로 대신 담당하셨으며,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자신의 죄와 의(義)때문 입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 : 16 은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들어 오셔서 거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복을 누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에겐 이 세상 행복이 아닌 하늘의 행복이 넘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어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 : 37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 :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혼의 갈증을 태워주는 생수가 성령으로부터 넘쳐 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생은 가진 사람을 죽음이 왜 지배를 못합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기에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가진 자는 살아있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 일어나는 영적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재림시에는 육체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재림시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부활의 확신이 넘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론부터 시작하여, 사도 신경 강해, 주기도문 강해를 공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생을 갖은 사람만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영생은 갖은 사람만 허무와 절망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여

어데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확신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